

계란 한 알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생산자가 먼저 생각해야

이 민 희 산골농장

지난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질병이 우리 농가에 많은 피해와 과제를 남겨 주고 간듯 싶다. 또한 이러한 과제를 잘 극복하여 올해 닭의 해를 맞이하여 많은 양계인들이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작년에는 대체적으로 우리 채란업계는 평년보다 좋은 난가가 형성되어 어느 때 보다 경영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을 것이다. 또한 고난가에 평소애 가져왔던 신, 증축에 대한 투자 의욕을 가진 농가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당장의 난가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기보다는 우리 양계업계의 미래에 대해서 종합적인 통찰이 있었으면 좋겠다. 과거에는 우리 양계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중에는 국내시장과 질병이 가장 큰 요인이었지만 이제는 환경적인 측면은 물론, 우리나라와 세계각국과의 FTA가 우리 양계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우리 양계인들이 예의 주시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몇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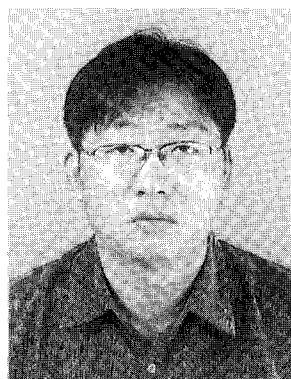
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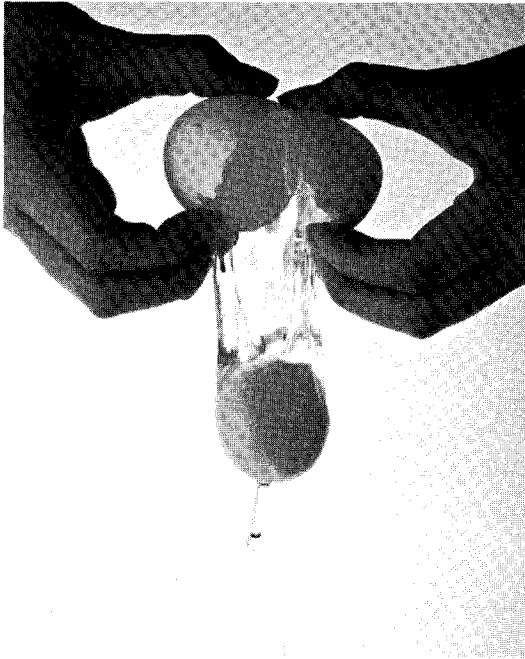
우선 장기적인 미래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하절기부터 난가가 인상을 거듭한 그 시점에서, 이러한 수익이 다

시 닥쳐올 양계의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투자를 했으면 싶다. 고난가가 이어질 경우 사육수수를 늘리고 신축을 통한 부풀리기식 투자가 고난가 후 저난가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과거의 예를 교훈 삼았으면 좋겠다.

시설이 열악한 계사구조나 질병으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농가들은 계사의 구조개선문제 등 질병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와 적정 수수를 유지하여 경쟁력 있는 농가로 거듭나고, 그러한 농장만이 경쟁력 있는 힘을 길러 다시 다쳐올 많은 양계의 어려움속에





서 생존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사육수수를 탄력적으로 조절해 적정 공급량을 유지하면서 난가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양계인들이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둘째 양계농가의 경영컨설팅이 필요하다.

우리 양계업계는 현대화,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대규모화된 농장들이 많이 늘어나고, 기업농화되고 영농법인화 해졌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내외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미흡하고 질병, 경영, 재무 등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양계농가가 고전을 하고 있다.

이에 기존에 하고 있는 형식적인 농업경영 컨설팅을 보완, 개선하여 경영뿐만 아니라 질병, 회계, 경영 등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가의 경영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양계업은 규모의 대, 소를 막론하고 많은 농가들이 가족농 중심이고, 농장주가 직접 경영을 하고 있으며, 농장주의 판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또한 농장주가,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들은 과거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것일 경우가 많다. 물론 그러한 판단들이 많은 부분에서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과거의 경험에 의한 경영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너무 수동적이고 미래의 예측에 대해서는 피동적이 될 수밖에 없다.

셋째 소비자의 성향에 맞는 유통라인 개척 및 생산이 필요하다.

이제 더 이상 싼 계란만으로 소비자들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키는 건 힘들어졌다고 본다. 또한 모든 것이 개방적이고 경쟁시대인 지금의 현실에서 언제까지 중국의 계란이, 태국의 계란이 강 건너 불일 수는 없지 않는가? 또한 웰빙이라는 문화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시점에서 점점 소비자는 안정적이고 질 좋은 계란만을 찾아가는 소비성향에서 농장만의 차별력 있고 질 좋은 브랜드 계란만이 수입산의 싼 대량의 물량공급에서 살아나가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 또한 온라인 주문 등 많은 부분에서 이제 지금의 재래식 유통시장 문화에서 조금 더 다양한 방법의 모색 또한 중요하다고 본다.

넷째 경영마인드를 가져야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산란계 농장경영이란 좋은 설비로 좋은 성적을 올려 좋은 계란을 생산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수익성을 증대시키기 위함이다. 즉 생산, 마케팅, 유통까지 모두 관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계란 생산 과정에만 보

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계란 한 알을 생산하기 위하여 토지 구입부터 얼마나 많은 노력과 설비와 투자가 이루어졌는가를 먼저 생각하여야 하며, 농장관리의 철저한 기록으로 항목별 경영분석 관리를 반드시 실시하여 농장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어야 하고, 우리농장의 모순점을 한가지씩 개선해 나가는 경영체야 말로 무한경쟁시대에 끝까지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제는 규모화보다도 경영이다. 어떻게 경영하느냐는 새로운 경영관리의 개념이 농장마다 도입되어야 한다. 농장주는 경영에 대한 마인드를 가져야 하며, 경영자로서 변화되어야 하

고, 농장의 중장기적인 계획경영 전략이 있느냐 없느냐로 그 농장의 성패가 결정될 수 있다.

계란 한 알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생산자가 먼저 생각해야 하며, 항상 내가 생산하는 계란은 나와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에서 위생과 품질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산자는 우리 계란의 품질향상에 혼을 다하여 노력하고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계란시장이 완전자유화 되었지만 액란의 수입량은 미미한 실정으로 경쟁국에 비하여 위생적인 계란을 생산할 때 우리 채란계 산업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농장관리 및 경영관리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양계**

경영자의 자세를 갖추길 바라며

한 만 혁 무지개농장

요즘 내가 즐겨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다. 바로 MBC-TV 월, 화 드라마인 '영웅시대'이다.

현재의 초일류 기업이 된 기업가들을 중심으로 격동기의 역사를 재미있게 극화해서인지 시대적 흐름을 잘 묘사해서인지 나로서는 상당히 호감이 가는 드라마이다. 비록 허구를 가미하긴 했어도 실존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했

고 주인공이 기업가라는데 아마 매력을 느낀 듯하다. 아마 어른들이 보시기엔 '그래 저때는 그랬었지' 하시며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